

전북 아트플랫폼 미디어아트 전시 개막

전북문화관광재단, '낙서창고 井' 서 6월 30일까지 매주 화~토요일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라북도 아트플랫폼 '낙서창고 井'에서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F)과 공동 협력전시를 통해 추진하는 미디어아트 작품 '무텐스토피아'는 생활의 흔적이 묻은 20대의 방 사진 1,000장과 극장, 카페, 펍, 파티룸 등 생활에서 해방된 유희공간의 사진을 수집해 제 3의 공간으로 재창조한 작품으로 상연 시간은 4분 36초다.

전시는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해당 작품 외에도 점음시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제작한 상설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라북도 미디어아트 창작·전시 공간에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해 도민의 미디어아트 향유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인 '낙서창고 井'은 점음시와 재단이 도내 유희시설인 점음 양곡창고 2층을 뉴미디어아트 중심의 창작공간



아트플랫폼 작품 사진

으로 조성해 지난 연말 개소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나 교육문화팀(063-230-745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통 성년례 행사 '문화! 향교에서 피어나다' 성료

김제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 김제향교서 열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다문화청소년전북협회 주관으로 김제향교(전교 나부꾼)에서 '문화! 향교에서 피어나다'라는 이름으로 전통 성년례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통 성년례 행사는 김제시의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1404년(태종 4)에 현 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의 유학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창건된 김제향교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명륜당에서 성년자 예절교육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성년의 마음가짐을 고취하고 성년의 아호를 받았다. 이어서 전각 수제도장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청년들로 이뤄진 '갈대자리' 팀은 마당극으로 행사를 축하했다.

오후 분향사에서는 성년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전통 성년례 관혼상제의 '관'에 해

당하는 의식이 이어졌으며, 우도벽골제풍물단과 전통예술연희원 '놀우'의 판굿과 단심줄놀이 등을 통해 성년을 맞은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펼쳐졌다.

나성희 교육문화과장은 "우리 시에서 수년 만에 진행된 전통 성년례 행사를 통해 김제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성년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년례 행사로 문을 연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6월 24일 우리 문화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인 '향교에 어서와불랑가'로 이어진다. 참여 희망시 (사)다문화청소년전북협회(063-548-0924), 김제시청 교육문화과(063-540-3517)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박노태 기자

군산 채만식문학관, '역사로 남은 나의 기록'展 개최

군산시 채만식문학관(이하 문학관)이 23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문학관 2층 전시실에서 기획전시 '역사로 남은 나의 기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문화 장르를 소개하고, 편지와 일기 같은 개인 기록물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각 장르별 설명문과 고분현 해석

본, 관련 사진 자료 20여 점을 전시하고, 연계 체험인 '추억엽서 쓰기'를 통해 전시의 감동과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이 문학관에서 접수한 추억엽서는 내년 1~2월 중 발송돼 군산에서의 추억을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예정이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편지'에서는 전통적인 소통 매체인 편지 원문을 시대별로

확인하고, 당시의 사회상과 국어의 변천 과정을 알아본다.

2부 '일기'에서는 안네의 일기, 승정원일기, 열하일기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과 문헌을 통해 일기의 정의와 종류, 작성 배경을 확인해본다.

3부 '전기문'에서는 회고록, 자서전 등 다양한 전기문 속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고, 4부 '수필'에서는 수필의 특징과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소개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발레단 '지젤', 익산 온다

6월 23~24일 국내 최정상 발레단 신비롭고 웅장한 무대 선사

낭만 발레의 정수인 국립발레단 '지젤'이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다음달 23일 24일 이틀 동안 개최해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웅장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낭만적인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립발레단 무용수들이 국내 최정상의 기량과 명성에 걸맞게 눈부시고 아름답게 펼쳐는 고난도의 테크닉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841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 '지젤'은 1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공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순박한 시골처녀 지젤이 약혼한 귀족 청년 알브레히트를 만나 후 신분의 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랑과 배신, 용서 등을 녹여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순수하고 발랄한 모습과 사랑의 배신에 오열하며 광란으로 치달는 비극적인 감정 연기, 고난도 테크닉과 마음에 능해야 하는 실력 등을 필요로 해 발레리나라면 누구라도 도전하고 싶어 하는 꿈의 무대로 불린다.

24명의 무용수들이 공기 속을 떠다니듯 일상분란하게 움직이는 몽환적인 군무는 세계 발레사에서 손꼽히는 군무의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익산에서 선보이는 이번 국립발레단의 '지젤'은 파리 오페라극장 발레단 부예술



감독이었던 파트리스 바르 안무 버전으로, 지난 2011년 초연부터 매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한 국립발레단의 대표작이다.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5월 말일까지 30% 조기예매 할인이 된다. 또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공연 전날까지 2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출범

남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남원시의 주요 관광 콘텐츠인 신관사또 부임행차(이하 행차) 공연이 지난 21일 화려하게 출범해 10월까지(7~8월 하절기 제외)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에 정기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 행차는 남원의 대표 이야기 콘텐츠인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거리 퍼레이드와 마당극으로 구성한 공연으로, 지난 2006년 시작하여 16년간 총 472회의 공연을 운영하며 관

광 남원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행차 공연은 사랑의 광장에서 취타연주 및 기생육방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30여분 거리 퍼레이드 후 광한루원에서 1시간에 걸쳐 마당극 춘향전으로 마치는 것으로, 마당극은 취타대 연주, 육방의 코믹댄스, 기생팀의 부채춤 기생잡고, 춘향잡고(관객객 주리체험), 출연진과의 포토존 순으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예술회관 6월 2일까지 하반기 수시대관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전라북도예술회관 하반기 수시대관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2일 재단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까지 하반기 수시대관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방법은 대관신청서와 전시계획서를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접수 결과는 6월 9일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수시대관은 6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하반기 정기대관 잔여 전시실을 대상으로 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